

시군단위 통합마케팅 농산물 매출 신장 '효자'

올 상반기 매출액 전년대비 120% 증가... 연 매출 목표 달성 가능 진안 공동법인,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고용... 인력 공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판로를 다변화 하는 등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연간 목표액 달성이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합마케팅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0%, 443억 원이 늘어난 2842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시군 내에서 농업인 또는 지역농협 등이 소규모로 별적으로 출하하던 것을 지역농협 등이 연합해 한 개의 조직으로 마케팅을 통합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차별화된 농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농

협 등의 출자로 13개의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4년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커다란 변화 시장 교섭력 및 농가 수취 가격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대비 매출액은 매년 평균 320여억 원씩 증가 추세를 보 이면서 2023년에는 매출 규모 5,486억 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2024년에는 매출액 6,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 매출이 크게 성장하

고 있는 이유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꾀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표적인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진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작업 인력이 필수적이지만,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진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

로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농가 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적시 공급해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과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올해는 60명의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 중으로 진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 7월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18% (15억 원) 상승한 97억 원으로 농산물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시·군내 통합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산물 마케팅 중심에서,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이나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농작업단 운영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진원, 3단계 수출 지원사업 운영

수출 전문가 활용 참여기업 만족도 높여... 수출 성과 특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제진흥원이 주최한 경진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촘촘한 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 전문가인 통상 닥터를 적극 활용하여 눈에 띄는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진원은 기존 행사형 사업 운영 탈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사업 운영 절차를 ①사전준비 단계→②현장단계→③사후관리단계로 기업을 지원한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현지 거점센터, 파트너사, 담당 실무자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도내 수출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진성 바이어를 발굴한다.

특히 바이어의 재정상태, 현지 판매 방법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렇게 발굴한 진성 바이어와 도내 기업이 사전 교신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능성 탈모 샴푸를 취급하는 P사 대표는 "경진원의 사전 바이어 검증으로 최근 바이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바이어와 사전 교신이 원활하여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하며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높은 만족을 표시했다.

현장 단계에서는 참여기업이 직접 사전 교신을 했던 바이어와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입, 판매경향, 수입 후 판매경로 등 파악할 수 있도록 1:1 수출 상담과 현장 통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 제품가격·품질 등에 대한 바이어의 반응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대응 방안을 전략적 지원, 그 결과 단순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지는 사후관리 단계는 통상 닥터를 활용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통상 닥터가 직접 바이어 요구사항에 대해 현상하여 실질적 수출성파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으로 통상 닥터와 함께 태국·인도 바이어 후속상담을 지원한 결과 탄소 필터를 취급하는 C사는 2만불 가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O사는 박람회 참가자원을 통해 10만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던 철저한 바이어 검증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 같아 기쁘다" 밝혔다. /김육기 기자

농진청, "논콩 생육 후기, 병해충 관리로 생산량 확보해야"

농진청(청장 권재한)은 콩고부리가 커지고 콩알이 여무는 생육 후기에 잘 발생하는 병해충과 방제법을 알리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 9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보돼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는 콩 병해충은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 노린재류 해충 등이 있다.

자주무늬병의 경우, 식물체 윗부분이나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작은 반점이 나타나 불규칙한 모양의 엽자색 병변이 생긴다. 종자는 자주색으로 변한다. 주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한다. 병 발생 초기에



등목된 약제를 살포해 피해를 줄인다. 탄저병은 줄기나 잎자루, 꼬투리에 어둡고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긴다. 병이 심해지면 줄기나 꼬투리에 발병해 콩알이 작아지고 색이 변하며 썩거나 아예 콩알을 맺지 못해 수확량이 떨어진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

돼 있어 무인 항공방제도 가능하다. 미라병의 경우, 습하고 따뜻한 조건에서 감염돼 잎, 꼬투리, 줄기 등에 증세가 나타난다. 줄기에는 작고 검은 점이 한 줄로 나타나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며 갈라지거나 길쭉하게 변형된다. 아직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병 발생을 줄이려면, 옥수수 밀 등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한다. 병이 발생해 수확이 늦어지면 피해가 커지므로 제때 수확한다.

국립사립과학원이 2021년부터 3년간 운영된 콩 종자를 무작위로 수확해 분리한 결과, 콩알이 여무는 9~10월 무렵에 대기 습도가 높았던 해에 탄저병, 미라병 감염 종자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가 병에 걸리면 품질이 떨어지고, 이듬해 콩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기 방제에 힘써야 한다.

노린재류 해충도 방제해야 한다. 콩알이 여무는 시기에 노린재 피해를 보면, 꼬투리가 비거나 콩알 색이 변해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특히 생육 후기에는 톨다래미허리노린재가 가장 큰 피해를 줘므로 개화기 이후부터 수시로 발생 여부를 확인해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한다. 노린재류 비행성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등록된 항공방제 전용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육기 기자

전북상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인입철도 반영 촉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입철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2일, 동익산신호장-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연구원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전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이 기업의 투자 기회와 성장 한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 중 전북에 본

사를 둔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한 반면, 완주군 역시 기존의 320만평 규모 산업단지(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에 더해, 앞으로 50만평의 수소특화국가1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총 약5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물동량을 도로 교통에 100% 의존하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와 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어려움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육기 기자

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제조혁신 노하우 공유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초청...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벤치마킹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부(장관 오영주),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중희)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여 명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초청해 삼성의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의 품질 향상을 주도하고 있는 (주)에바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실시간 생산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불량률과 출하 리드타임을 감소시킨 (주)한서정공 △60년 전통기와 제조기업으로 스마트 제조공정을 구현해내며 매출 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산청토기과 등 총 3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인들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제조현장을 투어하며, 냉장고·모터·금형·인쇄회로기판조립(PBA)·로프프레스 등 제품라인을 살펴보고 삼성전자의 AI를 접목한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ESG 관련 노하우 등 현장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영주 중소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정부 스마트공장의 핵심과제"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라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